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 놀이신념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layfulness, Play Beliefs and Rearing Attitude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김영희

Department of Child Study, Daejin University  
Professor : Young Hee Kim

### ◀ 목 차 ▶

I. 서론	IV. 논의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playfulness, play beliefs and rearing attitude. The participants were 261 mothers with young children. PSA(Playfulness Scale for Adults), PPBS(Parent Play Beliefs Scale),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productive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rearing attitude varied by mothers' age, employment status, and educational level.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mothers' playfulness, play beliefs, and rearing attitude. Third, mothers' playfulness and play beliefs were reliable predictors of rearing attitude.

**주제어(Key Words)** : 놀이성(playfulness), 놀이신념(play belief), 양육태도(rearing attitude)

**Corresponding Author** : You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 Study, Daejin University, 1007 Hogukro, Phochon, Kyunggi-do, 487-711, Korea  
Tel: +82-31-539-1643 Fax: +82-31-539-1640 E-mail: yhkim@daejin.ac.kr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I. 서론

부모는 인간의 성장·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환경으로서 그들의 태도, 행동, 가치, 신념 등은 자녀의 건강하고 전인적인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자녀에게 있어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 대상이며 애착 대상인 어머니는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자녀에게 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증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인간의 발달 단계 중에서도 유아기에 제공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나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태도 및 행동(이원영, 1983; Becker, 1964)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Fisbein, 1975). 이러한 양육태도가 이론적으로 연구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17세기까지는 엄격한 훈육 및 체벌이 가장 효율적인 양육태도라고 여겼으나, 소아의학 및 심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양육태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변화가 시작되었다(성희미, 2011). 전통적으로 정신분석이론과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행동주의에서는 아동의 행동발달에, Piaget와 Vygotsky 등의 인지이론가들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어머니의 아동양육에 관심을 가진 최근의 연구자들(박성연, 이숙, 1990; 박영애, 1995; 오성심, 이종승, 1982; 이원영, 1983; 정원식, 1975; Baumrind, 1971; Schaefer, 1959; Symonds, 1949)도 양육태도를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 이를 유형화하여 설명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양육태도를 구분하는 관점이 다르기도 하지만,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노명희, 박상희, 2002; 신소영, 2008; 이원영, 1983; 이은영, 김경혜, 2005; 임성실, 이정미, 김영희, 2010; 장영숙, 조혜정, 2006; Brenner & Fox, 1998; Landry, Smith, Swank, & Miller-Loncar, 2000; Petti, Dodge, & Brown, 1988)에서는 대체로 어머니가 자율적, 애정적, 수용적, 개방적, 합리적일 경우 자녀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반면 통제적, 적대적, 거부적, 폐쇄적, 비합리적일 경우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이렇듯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행동, 인지, 정서 등 발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주로 자녀의 발달에 부모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Belsky(1984)는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부모 개인의 발달적 역사, 성격, 부부관계, 사회관계망, 직업 등의 복합적 영향을 강조하였고, McGillicuddy-De Lisi(1985)는 부모의 심리적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문혁준, 1999; 박수현, 2006; 신소영, 2008; 유희아, 1996; 이명숙, 2010; 이원영, 1983; 조경미, 2009)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발달 간의 일차적 관계만을 다루기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인을 규명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어머니의 신념, 자녀교육관, 부모효능감, 놀이성,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성격특성 등과 같은 인지적, 성격적 요소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련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어떠한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유도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본인이 자녀발달에 가장 영향력이 큰 환경이라는 인식 하에 자신의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또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보다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선행변인을 규명해 보고자하며, 우선 어머니의 놀이성에 초점을 두고 양육태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놀이성을 양육태도의 예측변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일찍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은 모두 부모 자신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성격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며(Block, 1955), 놀이성이 바로 환경에서 가져온 특성이나 속성에 의해 증명된 개별적 성격특성(김영희, 2001)이기 때문이다.

놀이성은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의 활동을 재미있는 활동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성향(Glynn & Webster, 1992)이며, 개인이 활동할 때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개인의 지각이나 태도(Aguilar, 1985)로서, 놀이성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도구를 개발한 Lieberman(1965)과 Barnett(1990, 1991)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에 의해 놀이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놀이성은 타고난 부분이 많고 기질적인 성향이 짙은 성격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경험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자영, 2007). 또한 놀이성은 어머니와 영아간의 초기 상호작용에서 이미 나타나며, 그 후에는 아동의 놀이에서, 청소년의 농담이나 장난에서, 그리고 성인의 게임과 취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Erikson, 1977).

최근까지 이루어진 놀이성에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은 놀이성향이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성인의 놀이성이 활발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재적 성격 특성을 일컫는 심리학적 구인인 놀이성의 측정이 어렵고, 또한 전통적으로 어린 유아들에게는 놀이가 당연하지만 성인에게는 일이 더 중요하고 성인기에는 놀이가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Erikson(1977)이 지적했듯이, 놀이성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이며, 또한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의 놀이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성인의 놀이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학생들과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놀이성의 구인을 처음으로 연구한 Glynn과 Webster(1992)가 자발적인(spontaneous) 성향, 표현적인(expressive) 성향, 유쾌한(funny) 성향, 창의적인(creative) 성향, 순수한(silly) 성향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성인용 놀이성 척도(The Adult Playfulness Scale)를 개발한 이후, 성인의 놀이성에 대한 연구는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최근 국내에서는 놀이치료자(고은애, 2010; 양은실, 1998) 외에도 부모(강민경, 2007; 김기순, 박인전, 2002; 김자영, 2007; 김종석, 2011; 박현숙, 김광웅, 2004;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조경미, 2009)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인의 놀이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 못하며, 특히 아동의 발달과 삶에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놀이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더욱이 놀이성을 개인이 가진 고유한 성격특성으로 볼 때, 놀이성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 직면한 경우 그 상황을 지각하고 인지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개인차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성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미흡하다. 그러나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선행연구(김영희, 1995; 김지혜, 김광웅, 2006; 이영환, 임영옥, 오가영, 2006; 황윤세, 최미숙, 2007)를 살펴보면 놀이성은 유아의 외적 환경변인 뿐만 아니라 기질,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 창의성, 다중지능 등 개인내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개인내적 변인 중 하나인 놀이성이 작용하여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어머니의 놀이성과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강민경, 2007;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조경미, 2009)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놀이성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이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반응적인 양육태도 및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성과 함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되는 변인으로 놀이신념을 고려하였다. 신념이란 어떤 판단이나 주장, 의견 등을 진리라고 간주하는 마음의 상태(Sigel, 1985)로서,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강한 힘을 가지게 한다. 신념은 개인이 태어나면서 접하게 되는 환경에 의해 형성되며, 이후에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인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해 가기도 하는 것(Johnson & Martin, 1985)이지만, 지식에 비해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인지적 변인으로서 다른 어떤 변인보다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들 간에 행동이 서로 다른 이유는 신념의 차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Goodnow, 1988). 즉 신념에 근거하여 부모는 자녀양육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에 비추어 자녀양육의 결과를 평가하며,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고 관리함으로써 부모로서 적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념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경로로 작용하여 실제 양육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부모의 신념이 자녀의 발달을 객관적,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양육행동을 증대하기도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양육행동 자체보다 자녀의 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신념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념보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갖는 신념이 양육에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다(Fogel, 2003; Sigel, 1992)는 주장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신념 중에서도 유아에게 있어 생활 그 자체인 놀이와 관련된 신념을 양육태도의 선행변인으로 보고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성장해 가는 유아에게 있어서 일이자 생활이며, 배움의 수단이고, 주변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매개체인 놀이에 대해 갖는 어머니의 신념은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아이디어와 감정 그리고 놀이가 유아의 발달과 성취에 어떻게 공헌하는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어머니의 놀이신념은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유미, 2008, 유인순,

2005; 이진화, 2009; 이진화, 임원신, 조성연, 2009; 이한별, 2008; 하미현, 2010; 홍정민, 2008; Fogel, 2003). 이러한 놀이신념과 관련하여 Fogel(2003)은 놀이지지 신념과 학습중심 신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놀이지지 신념이란 유아의 놀이에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써 놀이가 어린이들의 사고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을 의미하며, 학습중심 신념이란 유아들의 놀이를 학습 성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매개체로 인식하여 자녀와 함께 재미와 즐거움을 지향하는 놀이를 하기 보다는 학습중심적 목표를 가지고 놀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신념을 측정한 연구(Fogel & Mendez, 2006) 결과, 놀이를 지지하는 부모들은 놀이를 즐기고 놀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놀이를 가르치는 기회로 보고 있었으나, 학습중심 신념을 가진 부모들은 읽기나 글자 배우기와 같은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대한 선행연구(부민경, 2010; 신혜경, 2009; 유미, 2008; 윤승림, 2009; 이한별, 2008; 하미현, 2010)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아 발달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정작 유아 발달에 중요한 환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다. 이진화(2009)와 홍정유(200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홍정유(2007)의 연구결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강할수록 온정·격려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예측변인, 학습중심지지 신념은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진화(2009)의 연구결과, 놀이지지 신념은 온정·격려, 한계설정 행동과 정적 상관을, 그리고 거부·방임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학습중심 신념은 한계설정 행동과 거부·방임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비추어 볼 때, 어머니의 놀이신념은 양육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두 변인, 즉 놀이성과 놀이신념에 대한 선행연구(강민경, 2007; 김자영, 2007; 김중석, 2011;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이진화, 2009; 조경미, 2009; 홍정유, 2007)에서는 이들 변인 각각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했을 뿐, 두 변인을 함께 다루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기초로 놀이성과 놀이신념, 그리고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두 변인의 양육태도에 대한 상대적인 설명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놀이성 및 놀이신념과 양

육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양육태도에 있어서 놀이성과 놀이신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나아가 부모교육 및 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여전히 부모교육 및 상담의 많은 내용이 아동의 문제행동, 부모자녀관계, 양육행동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다 궁극적이고 효율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양육태도, 그리고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 변인 및 그러한 변인의 영향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일반적 배경변인(어머니의 연령, 취업유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놀이성 및 놀이신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놀이성 및 놀이신념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3개 시(P시, D시, Y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곳에 다니는 유아(남아 120명, 여아 141명)의 어머니 26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유아기가 부모의 보살핌과 관심이 보다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어느 시기보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서 이 시기에 제공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기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기(Pettit, Bates, & Dodge, 1997)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분	빈도	%
연령	35세 미만	150	57.5
	35세 이상	111	42.5
취업유무	유	97	37.2
	무	164	62.8
교육수준	고졸 이하	131	50.2
	전문대졸 이상	130	49.8
계		261	100

## 2. 측정도구

### 1) 성인 놀이성

어머니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오혜주(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오혜주(2008)는 일반 아동 어머니와 놀이치료 어머니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aefer와 Greenberg(1997)가 개발한 PSA(Playfulness Scale for Adults)를 번안하고 수정한 후, 만 3-8세 아동의 어머니 24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PSA는 Glynn과 Webster(1992)의 척도(The Adult Playfulness Scale)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만들어진 성인용 놀이성 척도로, 원래 익살스러움(Fun-loving), 유머감각(Sense of Humor), 재미탐닉(Enjoy Silliness), 비형식성(Informal), 별난(Whimsical)의 5요인으로 구성된 28문항의 도구이지만, 오혜주(2008)는 요인분석 결과 유머감각, 익살스러움, 재미탐닉의 3요인을 측정하는 총 18문항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제작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놀이성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인 놀이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2) 놀이신념

어머니의 놀이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Fogel(2003)이 제작한 PPBS(Parent Play Beliefs Scale)를 유미(2008)가 번안하고 수정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놀이신념, 부정적 놀이신념, 부모중심 놀이신념을 측정하는 총 23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놀이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긍정적 놀이신념이란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놀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놀이에 적극 참여하고 자발적 놀이를 지지하는 놀이중심 신념이며, 부정적 놀이신념은 놀이가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지 않고 놀이에 참여하지 않으며, 학습적 자극을 주는 것을 중요시한다. 부모중심 놀이신념은 유아보다는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부모가 놀이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나 유아와 함께 노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지하는 놀이신념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긍정적 놀이신념 .92, 부정적 놀이신념 .84, 부모중심 놀이신념 .77로 나타났다.

### 3)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은경(2009)의 연구에서 이용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S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여 만든 질문지를 재구성한 것으로, 자

율-통제, 애정-거부에 관련된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자율적 태도 .84, 통제적 태도 .78, 애정적 태도 .83, 거부적 태도 .70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0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먼저 교사를 통해 총 300부의 질문지를 어머니들에게 배부하여 27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총 26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t$ -검증, Pearson의 상관분석, 단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차이

어머니의 연령, 취업 유무,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자율적, 통제적, 애정적 태도는 어머니의 연령, 취업 유무, 교육수준에 따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반면 거부적 태도는 취업 유무를 제외한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배경 변인별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35세 미만의 어머니들이 35세 이상의 어머니들에 비해 더 자율적, 애정적인 반면 덜 통제적,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취업한 어머니들이 비취업 어머니들에 비해 더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반면 덜 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의 어머니들에 비해 더 자율적, 애정적인 반면 덜 통제적,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

###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놀이성 및 놀이신념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놀이성 및 놀이신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표 2〉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차이

(N = 261)

구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M(SD)	t	M(SD)	t	M(SD)	t	M(SD)	t
연령(n)								
35세 미만(150)	21.57(4.54)	7.30***	16.70(4.89)	-3.25***	22.26(4.41)	5.48***	13.84(3.61)	-2.91**
35세 이상(111)	17.11(5.13)		19.02(6.22)		18.42(6.33)		15.54(5.32)	
취업 유무(n)								
유(97)	22.29(3.97)	7.17***	16.47(4.89)	-2.72**	22.85(3.92)	5.70***	14.45(4.30)	-.30
무(164)	18.13(5.35)		18.40(5.89)		19.32(6.07)		14.63(4.61)	
교육수준(n)								
고졸 이하(131)	17.05(5.03)	-9.33***	18.99(6.28)	3.89***	18.39(5.81)	-7.03***	15.50(4.84)	3.47***
전문대졸 이상(130)	22.32(4.06)		16.37(4.48)		22.88(4.44)		13.62(3.90)	

\*\* p < .01, \*\*\*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율적, 애정적 양육태도는 긍정적 놀이신념, 부모중심 놀이신념, 놀이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적 놀이신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놀이신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긍정적 놀이신념, 부모중심 놀이신념, 놀이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긍정적이고 부모중심의 놀이신념을 지닌 어머니일수록, 그리고 놀이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더 자율적, 애정적인 반면 덜 통제적, 거부적이었다. 또한 부정적인 놀이신념을 지닌 어머니일수록, 그리고 놀이성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해 통제적, 거부적인 반면 자율적이거나 애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놀이성 및 놀이신념의 상대적 설명력

어머니의 놀이성 및 놀이신념이 양육태도를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태도의 각 하위영역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놀이신념의 하위영역과 놀이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회귀분석의 적용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1.74~2.05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측정시간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산출한 결과 1.00~2.06으로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10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자율적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놀이신념의 설명력이 49%로 나타났으며, 놀이성이 추가되어 10%의 설명력이 증가됨으로써 이들 변인은 자율적 태도를 5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제적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놀이성의 설명력이 37%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놀이신념이 추가되어 5%, 부정적 놀이신념이 추가되어 7%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또한 부모중심 놀이신념이 추가되어 1%의 설명력이 증가되었으며, 이들 변인은 통제적 태도를 50% 설명하였다. 그리고 애정적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긍정적 놀이신념의 설명력이 54%로 나타났으며, 놀이성이 추가되어 6%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또한 부정적 놀이신념이 추가되어 2%의 설명력이 증가되었으며, 이들 변인은 애정적 태도를 62% 설명

〈표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놀이성 및 놀이신념의 관계

변인	양육태도				5. 놀이성	놀이신념		
	1. 자율적	2. 통제적	3. 애정적	4. 거부적		6. 긍정적	7. 부정적	8. 부모중심
1								
2		-.41***	.85***	-.33***	.68***	.70***	-.56***	.57***
3			-.38***	.53***	-.61***	-.21***	.48***	-.14*
4				-.25***	.65***	.73***	-.61***	.56***
5					-.43***	-.29***	.33***	-.30***
6						.63***	-.57***	.53***
7							-.61***	.71***
8								-.44***

\* p < .05, \*\*\* p < .001

〈표 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놀이성 및 놀이신념의 설명력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Delta R^2$	$R^2$	$F$
자율적 태도	긍정적 신념	.70***	.49	.49	248.83***
	놀이성	.40***	.10	.59	183.71***
통제적 태도	놀이성	-.61***	.37	.37	150.20***
	긍정적 신념	.30***	.05	.42	93.81***
	부정적 신념	.33***	.07	.49	80.60***
애정적 태도	부모중심신념	.14*	.01	.50	62.70***
	긍정적 신념	.73***	.54	.54	296.51***
	놀이성	.31***	.06	.60	188.05***
거부적 태도	부정적 신념	-.19***	.02	.62	135.87***
	놀이성	-.43***	.19	.19	59.30***

\*  $p < .05$ , \*\*\*  $p < .001$

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부적 태도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변인은 놀이성 이었으며, 설명력은 19%였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 취업유무,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낮은 연령의 어머니가 높은 연령의 어머니에 비해 더 자율적, 애정적인 반면 덜 통제적,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홍정유(2007)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어머니가 온정·격려 행동을, 31-35세 어머니가 거부·방임 행동을 많이 보인 결과와는 상반되지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명수, 1985; 상형자, 1992; 이영순, 1988)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애정적,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성장 환경의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자율적, 애정적이며 덜 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몇몇 연구(기보경, 2000; 박희영, 2010; 이은수, 1985; 이정순, 2002)에서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애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나타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취업모가 더 애정적으로 나타난 송아람(200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한편 거부적 양육태도에서는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비취업모가 거부·방임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결과(김정숙, 2005; 홍정유, 2007)와 다르다 하겠다. 이처럼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련하

여서는 연구자들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아동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낮은 어머니에 비해 더 자율적, 애정적인 반면 덜 통제적,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더 자율적이고(조경미, 2009), 애정적이며(김재희, 박경란, 1998; 박희영, 2010; 최수진, 2002; 한중혜, 1980),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통제적이고(박희영, 2010; 이원영, 1983), 의존성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인다(이은수, 1985)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밖에도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온정·격려 행동을 많이 보이며(홍정유, 2007), 애정적이고 합리적 지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김지신, 1996; 안재연, 1992; 양정선, 1997), 정서적 안정감, 감성융화, 바람직한 성격형성의 역할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이희숙, 1984)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인은 교육과정을 통해 아동 및 양육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익히게 되며,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부모가 되어서도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적고,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희와 박경란(1998)은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얻는 데에 적극적이고 이에 따라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김영선(2009)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부 및 통제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서,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 유아의 호기심에 높은 가치를 두고,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유아의 호기심보다는 복종, 정직, 청결 등 즉각적인 반응에 더 가치를 두는 까닭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연령, 취업유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어머니의 개인 조건에 맞는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변인과 양육태도의 관계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와 대한 지속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 여겨진다.

둘째, 놀이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더 자율적, 애정적인 반면 덜 통제적, 거부적이었다. 이러

한 결과는 최근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된 몇몇 연구(강민경, 2007;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조경미, 2009)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조경미(2009)는 어머니의 놀이성, 양육행동,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놀이성 중 즉흥성을 제외한 쾌활성, 상상력, 기발성은 거부적 태도와 부적 상관, 그리고 자율적 태도와는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민경(2007)의 연구에서는 놀이성 중 쾌활성은 양육행동 중 애정성과, 그리고 상상력은 합리적 지도, 애정성, 반응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신선희 외(2008)의 연구에서는 놀이성 하위변인들과 양육행동 하위변인들 간에 정적인 관계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성 변인 중 쾌활성과 상상력이 양육행동과 높은 관계성을 가지고, 양육행동 중 제한성과 애정성이 놀이성과 높은 관계성을 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놀이성은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놀이성이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행동을 이끈다(Glynn & Webster, 1992)는 것을 확인하였다.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자기의 활동을 재미 있는 활동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성향(Glynn & Webster, 1992)인 놀이성은 삶에 접근해 가는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Erikson, 1972)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게 되는데, 이때 놀이적인 요소가 첨가되면 더욱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양육 상황에서도 자녀의 좋은 발달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의 놀이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육은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지만 어머니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자녀의 삶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과정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즐겁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어머니의 놀이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셋째, 긍정적이고 부모중심의 놀이신념을 지닌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자율적, 애정적인 반면 덜 통제적, 거부적이었다. 또한 부정적인 놀이신념을 지닌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해 통제적, 거부적인 반면 자율적이거나 애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인지학적 관점에서 보면 신념, 효능감, 만족도 등의 인지적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되며,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즉 연구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변인 중 하나인 놀이신념은 양육태도와 높은 상관관을 보였는데, 놀이에 대해 바람직한 신념을 가진 어머니가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보다 자녀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신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이진화(2009)와 홍정유(200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정유(2007)의 연구에서는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강할수록 온정·격려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이진화(2009)의 연구에서 놀이지지 신념은 온정·격려, 한계설정 행동과 정적 상관관, 그리고 거부·방임 행동과 부적 상관관을 보인 반면, 학습중심 신념은 한계설정 행동 및 거부·방임 행동과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놀이신념은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부모들 간에 행동이 서로 다른 이유는 신념의 차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Goodnow, 1988)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듯, 어린 유아의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놀이가 생활의 전부인 유아를 양육하는 태도 역시 달라진다 하겠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자율적 태도의 예측변인은 긍정적 놀이신념과 놀이성 이었으며, 통제적 태도에 대해서는 놀이성과 세 가지 놀이신념 모두가 유의한 설명력을 지녔다. 또한 애정적 태도를 예측해주는 변인은 긍정적 놀이신념, 놀이성, 부정적 놀이신념 이었으며, 거부적 태도의 예측변인은 놀이성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 각각을 대상으로 놀이성을 조사한 연구(김자영, 2007; 김종석, 2011; 조경미, 2009)와 놀이신념을 조사한 연구(이진화, 2009; 홍정유, 2007)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어머니의 놀이성, 양육행동,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조경미(2009)의 연구에서 일반아 어머니의 놀이성 중 상상력과 즉흥성은 거부적 양육태도와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 제한성, 애정성 등을 설명해 주는 주요한 예측변인 이었으며, 반응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그리고 자율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기발성과 즉흥성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자영(2007)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양육행동 중 친밀감, 양육참여, 반응성, 합리적 지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종석(2011)의 연구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양육참여에는 놀이성 중 상상력과 쾌활성이, 제한설정에는 상상력과 즉흥성이, 반응성에는 쾌활성과 즉흥성이, 합리적 지도에는 상상력과 즉흥성이, 친밀감에는 쾌활성이 의미있는 설명력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놀이신념의 상대적 설명력을 규명한 이진화(200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은 양육행동 중 과보호·허용행동을 제외한 세 개의 하위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변인이었으며, 홍정유(2007)의 연구결과, 놀이중심지지 신념은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예측변인, 학습중심지지 신념은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는 어머니들일지라도 실제 양육태도에서는 개인차를 보일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놀이성과 놀이신념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이 두 변인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놀이적인 성격특성과 놀이에 대한 올바른 신념이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의 놀이성이 어떠하며 놀이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부모교육 및 상담 시 어머니의 양육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의 놀이성을 증대시키고 올바른 놀이신념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한결같이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부모들이 양육 과정에서 자신의 기질, 성격, 인식과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때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자녀에게서 찾고 문제해결을 위해 자녀를 먼저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기 쉽다. 이런 경우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문제해결은커녕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자녀들은 다양한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나타내게 된다. 이처럼 부모역할이 쉽지 않을 때 부모는 우선적으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우선 자신이 제공하는 양육환경, 그 중에서도 자신의 양육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신의 놀이성과 놀이신념을 점검해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율적, 애정적 양육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놀이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놀이신념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제까지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서 성격적 변인인 놀이성과 인지적 변인인 놀이신념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양육태도의 근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놀이성과 놀이신념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하지만 보다 발전적인 추후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방법론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응답이 미화되었을 수 있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을 대

상으로 하였으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지역적 배경을 가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어머니 자신의 내적 변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놀이성과 놀이신념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 변인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폭넓게 밝힘으로써 양육태도에 대한 개인내적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의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육아의 많은 부분을 다른 대리양육자나 기관이 담당하는 현실에서도 자녀에게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양육시간과 관계없이 어머니가 제공하는 양육환경, 그 중에서도 양육태도는 자녀가 어릴수록 그 영향력이 크므로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선행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양육태도의 선행요인임이 확인된 놀이성과 놀이신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아가 어머니의 놀이성과 놀이신념이 양육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 다 하겠다.

■ 참고문헌

강민경(2007). 어머니의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효능감의 매개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은애(2010). 놀이치료자의 놀이성과 제한설정이 치료적 동맹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보경(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순, 박인전(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5(2), 27-43.

김명수(198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선(2009).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1995).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2001). 성격특성과 놀이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4(1), 31-40.
- 김자영(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 박경란(1998).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5, 295-319.
- 김정숙(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지위 및 놀이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석(2011). 아버지의 놀이성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 : 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김광웅(2006). 유아의 놀이성과 정서능력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9(1), 91-105.
- 노명희, 박상희(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3), 107-127.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수현(2006).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숙, 김광웅(200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7(1), 13-24.
- 박희영(2010). 유아 및 어머니 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민경(2010).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상형자(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희미(2011). 모의 창의성 훈련이 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아람(2006).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태도의 관계가 유아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동적 가족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2008). 어머니의 놀이성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281-299.
- 신소영(2008).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경(2009).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실(1998). 놀이치료자의 놀이성과 경력, 태도, 지식, 기술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선(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 오혜주(2008). 일반 아동 어머니와 놀이치료 내담 아동 어머니의 놀이성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2008).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인순(2005).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아(1996). 어머니의 비합리적 신념이 자아교육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승림(2009).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201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순(1988). 아버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임영옥, 오가영(2006). 유아의 창의성, 놀이성, 다중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과학회지**, 9(1), 15-24.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격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김경혜(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0(1), 105-119.
- 이정순(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2009).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2), 327-344.
- 이진화, 임원신, 조성연(2009).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정서능력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3), 149-170.
- 이한별(2008). 부모의 유아 놀이신념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숙(1984). 자녀가 지각한 부친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실, 이정미, 김영희(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2), 143-157.
- 장영숙, 조혜정(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0(1), 251-268.
- 정원식(1975). **교육 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 조경미(2009). 영재아 어머니의 놀이성과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진(2002). 어머니의 유아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경(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미현(2010). 유아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만5세 유아의 놀이성 및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취학전 아동의 지능발달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민(2008). 어머니의 양육 및 놀이신념에 따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유(2007).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세, 최미숙(2007). 기질과 사회적 유능감이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49-66.
- Aguilar, T. E.(1985). Soci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to playfulness. In J. L. Fost & S. Sunderlin(Eds.), *When children play*(pp.73-76). Wheaton: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 Barnet, L. A.(1990). Playfulness :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 Culture*, 3, 319-336.
- Barnet, L. A.(1991). The playful child :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1-74.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1, 1-103.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86.
- Block, J.(1955).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fathers'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Child Development*, 26, 41-48.
- Brenner, V., & Fox, R. A.(1998). Parental discipline and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 251-256.
- Erikson, E. H.(1972). Play and civilization. In J. S. Bruner, A. Jolly, & K. Sylva(Eds.). *Play: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 (pp. 690-703). New York: Basic Books.
- Erikson, E. H.(1977). *Toys and reasons*. N.Y.: Norton.
- Fisbein, M.(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Fogel, L.(2003). *Parent beliefs about play : Relations with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child peer play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Fogel, L., & Mendez, J.(2006). Assessing the play beliefs of African American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 507-518.
- Glynn, M. A., & Webster, J.(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s*, 71, 83-103.
- Goodnow, J. J.(1988). Parents idea, action, and feelings: Models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Johnson, J. E., & Martin, C.(1985). Parents beliefs and home learning environments: Effects on

- cognitive development.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25-5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ndry, S. H., Smith, K. E., Swank, P. R., & Miller-Loncar, C. L.(2000). Early maternal and child influences on children's later independent cognitive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1(2), 358-375.
- Lieberman, J. N.(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McGillicuddy-De Lisi, A. V.(198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7-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 908-923.
- Petti, G. S., Dodge, K. A., & Brown, M. M.(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Schaefer, C., & Greenberg, R.(1997). Measurement of playfulness: A neglected therapist vari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6), 21-31.
- Schaefer, E. S.(1959). Development of natur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a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igel, I. E.(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345-37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igel, I. E.(1992). The belief-behavior connection: A resolvable dilemma.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 Lisi, & Goodnow J. J.(Eds.). *Parental Belief Systems: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nd ed.)*, (pp.433-45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ymonds, P.(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접 수 일 : 2011년 7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1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 2011년 9월 28일